

[추천도서]

소설가 리동렬, 장편소설 《불타는 숨결》 출간

—연변작가협회 중점 작품 부촉항목 지원 작품



10월 초, 소설가 리동렬의 장편소설 《불타는 숨결》이 연변작가협회 중점 작품 부촉항목의 지원으로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장편소설 《불타는 숨결》은 1910년대 말 할빈 부가전(傅家甸, 현재의 할빈시 도외구)을 배경으로 일본군의 군도집을 피해 도피에서 할빈 부가전으로 도피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

선인 청년 장서준과 중국인 랑자 부아림(傅雅林), 만족인 사냥꾼 닐로, 일본간첩 아사코 사이에 얽힌 사랑과 운명적인 이야기를 그렸으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는가 하는 역사와 그로 인해 두 나라 백성들이 겪은 수난사를 깊이있게 조명했다.

또한 중국인 랑자 부아림(傅雅英)과 사냥꾼 가르한, 로씨야 미망인 나따사와 할빈 상업계의 중국인 회장 부일만 등 사이에 얽히고 설친 사랑과 운명적인 이야기를 통해 할빈 도외구 부가전의 형성과 발전, 중국 최초로 근대화를 이룬 할빈의 발전 역사를 보여주었으며 페스트란 엄청난 자연재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인간의 끈기 있는 생명력과 생존욕구 및 지혜를 보여주었다. 특히 동북 3성 총의관 오련덕(吳連

德)이 청나라를 대표해 로씨야, 일본 등 세력과의 리해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에서 백성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페스트를 극복하고 외세의 야망을 잠재우는 이야기가 그려 페스트와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리해관계와 리념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쳐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와 생명 제일, 생명 존중은 인류의 공동 념원이란 리념을 문학적으로 풀었다. 더불어 작품은 할빈의 건축문화와 로씨야 종교문화의 영향, 만족의 풍속 등에 대한 디테일하고 진솔한 묘사를 통해 당시 문화를 이뤘다는 할빈의 민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리동렬의 장편소설 《불타는 숨결》은 조선족의 시선으로 1910년대, 일본의 침략이 조선에 가져다준 막대한 재난, 페스트(黑死病) 재난에 직면한 중국인, 로씨야인, 조선인, 일본인 사이에 얽힌 운명적인 모습을 문

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과 생명 제일, 생명 존중의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학적 가치를 보이고 있다.

리동렬은 소설가이고 언론인이며 중국작가협회 회원이다. 현재 재한동포작가협회 회장(연변작가협회 재한조선족문학창작위원회 주임), 《동북아신문》 사장, 중국신문주간(조선글판) 잡지 《차이나 뉴스위크》 편집주간, 《도서출판 바다바람》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장편소설집 《고요한 도시》, 《락화류수》, 중단편소설집 《눈꽃서정》, 《토양대》 등을 출간했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출판사, 연변작가협회 문학상, 연변문학 소설본상, 《연변일보》 해랑강문문학상, 《흑룡강일보》 신춘문예 장편소설 공모상, 《도라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오건기자

허련순의 장편소설 《숨소리를 듣는다》



일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허련순의 아홉번째 장편소설 《숨소리를 듣는다》를 출간하였다.

이 소설은 한 장의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김시현은 장의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친구들로부터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놀림을 받는다. 그것이 그에게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죽은 사람의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 점차 사람을 기피하

고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의과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결국 중퇴를 하고 만다.

그는 ‘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서’ 죽은 사람과 어울리려 했고 ‘자포자기’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의사로 된다. 결국 김시현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삶과 죽음의 본질을 사고하게 되고 장의사의 가치를 알게 되며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게 된다.

이 소설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라짐, 공허와 허무, 부재하는 자의 자취, 삶의 위기와 불안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 소설의 동기이다.

소설은 사라지고 없는 부재에 추억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 추억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에 의하여 재생된다는 측면에서 이 소설은 죽음을 초월하려는 의미를 지닌다.

/안상근기자

밀산조선족인물 장편보고문학전집 《주축》 발간식



10월 10일, 맹고군 편저 밀산조선족인물전집 《주축》(脊梁) 중문판 책자 발간식이 밀산시에서 있었다. 《주축》은 글로벌중국인출판사에서 출판한 53만자에 달하는 방대한 장편보고문학전집이다. 책에는 44명의 영웅인물과 선진모범의 빛나는 사적들이 수록되어있다. 그들의 발자취는 밀산뿐만 아니라 연변을 포함한 조선족 집거구와 산재지역 및 조선반도에 널리 퍼져있다. 《주축》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중국 조선족의 한세기 ‘축소

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발간식에서 작자 맹고군이 《주축》의 주요 내용, 창작 과정, 배후 이야기와 창작 심로를 서술했다. 《주축》전집 제1 부분에서는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 밀산지역에서 간고한 항일투쟁과 비적 토벌 전투를 진행한 21명의 영웅인물을 기술하였다. 제2 부분과 제3 부분에서는 각각 새 중국 창건 이후와 개혁개방이래 밀산에서 용솟음쳐나온 조선족 선진인물들과 전국 각지에서 새 중국 건설을 위해 중

요한 공헌을 한 밀산적 조선족 인물들을 기술하였다.

창작 소감에서 맹고군은 “제1 부분에서 영웅들이 처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80~90년전으로 남겨진 력사자료가 매우 적어 편찬 작업이 어려웠다. 반복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 엄격한 품질 통제를 거쳐 마침내 그 당시 영웅들의 용감한 장거를 진실하고 믿을 수 있게 기록하고 항전과 비적 토벌의 눈물겨운 세월을 분명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제

2 부분에서도 생동감 있는 세부사항과 장면묘사로 력사를 복원하고 새 중국 창건이래 각 력사시기의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재현하고자 노력했다. 책 속 인물들은 력사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정신의 수용체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의 피와 지혜로 력사를 썼고 자신의 등줄기로 민족의 등줄기를 받쳐주었다. 강인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신품성, 그것이 바로 ‘주축정신’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주축》전집 작자 맹고군(1953년 해림시 출생, 대학 학력)은 일찍 밀산시규률검사위원회 비서, 밀산시인정국 부국장, 중공밀산시당위 조직부 부부장, 밀산시총공회 주석, 밀산시인민정부 부시장 등 직무를 력임했다. 은퇴후 ‘우리 민족의 력사는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문화 발굴과 정리, 보존과 활성화 등 면에서 많은 소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밀산조선족백년사》, 《흥개호반에 피어난 진달래》 등 책들을 기획하고 출판했으며 중문으로 《영원한 기념비》(丰碑), 《선구자》(先驱) 등 인물전기과 《석양만정》(夕陽晚晴), 《추몽세월》(追梦岁月) 등 기념화책을 편찬해냈다.

/흑룡강신문

연변도서관 서예열람실 개설



연변도서관 서예열람실 기동식 및 오명남 서예소장도서 증정식이 12일, 연변도서관에서 열렸다.

기동식에서 연변량산서화협회가 연변도서관에 오명남의 서예도서를 기증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명남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서예가중 한 사람으로 깊이있는 서예리론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오명남의 귀중한 서예도서 기증으로 연변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더욱 풍부해졌으며 연변지역의 서예문화 발전에 힘을 보탰다.

이번 연변도서관에서는 서예열람실 개관식이 함께 열렸다.

이번 활동은 연변도서관 주최, ‘책으로 민족의 정을 꽃피우다’를 주제로 하는 특별 시리즈 활동의 일환으로 중화민족공동체意識의 확고한 수

립을 주선으로 하고 중화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대중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민족단결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문화 서비스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기획했다.

연변도서관 사회교육부 김승휘 부장은 “연변도서관 서예열람실 개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예의 매력에 빠져들고 서예를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서예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변도서관 서예열람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서예 관련 도서를 무료로 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서예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혜기자

[독후감]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비운의 마라토너》라는 자서전을 선물받았다. 지인은 “시간 내서 꼭 한번 잘 읽어보요. 한 장애인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썼는데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요.”라고 말했다. 책의 저자는 박영옥이었다.

이튿날 아침 밥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나는 《비운의 마라토너》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여성의 삶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기적적인 그의 치열한 삶은 한마디로 생과 죽음 앞에 나선 한편의 서사시같았다.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나는 줄곧 감동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어려서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게 된 그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에 걸친 수술은 참으로 감당하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럴수록 그는 힘든 운명에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강한 의지로 병마와 싸워나갔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앞에 쌓인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평범치 않은 인생 로정을 용케도 걸어나왔다.

“얽힌 데 얽친 격”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그를 놓고 한 말인 것 같다.

지체장애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에게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닥쳐왔다. 의사의 입에서 ‘암’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교차했고 충격도 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암세포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현실을 차분하게 받아들인다. 곧 마음을 추스리고 수술대에 다시 올라 항암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도 스스로 고통에 빠지지 않고 약처럼 의력으로 극복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그를 끝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나는 너무 감동되어 잠깐 생각에 잠긴 채 마음을 추스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가 애로에 모대기며 지새운 밤은 얼마이며 흘러 눈물은 또 얼마였을까! 생각만 해도 리해가 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진다.

주인공은 또 두차례의 혼인 실패를

자서전 《비운의 마라토너》를 읽고



겪는다. 결혼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발판으로 삼아온 첫 남편! 말쑥한 신체에 장애인의 힘을 빌려 농민이란 딱지를 벗어보려고 없는 사랑을 속여가다 그 리기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자 계속되는 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그녀는 결혼 5년 만에 그 남자의 농민 딱지를 벗겨준 후 리혼의 길을 선택했다. 그때 그 아픔은 얼마나 컸

을가? 그래도 묵묵히 아픔을 가슴에 묻고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나가는 그 가혹한 마음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를 노력하면 얼마를 얻는 게 인생법칙이다. 이는 저자가 65년이란 지체장애인의 인생 로정을 지난하게 살아오면서 느낀 체험담이다. 그렇다. 장애인이라서 운명에 머리를 숙인다면 몇몇 안되는 못사람들의 동정은 살

성승권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찌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얻게 되는 값진 수확과 더 없는 성취감이 있을 수 있랴.

비록 장애가 있을 해도 굶어지지 않고 운명에 맞서 완강한 의지로 피타는 노력을 거듭한다면 그만큼 얻는 것이 커지고 인생도 충실해질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지체장애인이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소학교 때 겪을이면 선생님과 고급학년 언니들의 등에 업힐 때가 많았고 동창생들이 가방을 대신 메여준 일, 수레를 몰고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수레에 앉혀준 일... 그래서 저자는 책에 그들의 사적과 이름도 포박포박 적어넣었고 따뜻한 인사도 전했다. 고마움이나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겨두는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저자는 자신에게는 풍도도 아끼는 구두쇠지만 나에게 배울 때는 전혀 아낌이 없다. 자신이 발표한 글을 보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점심도 대

접하고 무료로 글짓기 요령도 가르친다. 갈 때면 차표를 때준다거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작정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다.

인정이 메말라가는 요즘 세월에 그는 이웃들에게 이모처럼, 언니처럼,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따사로움을 느끼게 한다. 저 멀리 내 고향 빈 들만에 피어난 가을 국화마냥 향기가 가득하다.

지칠 줄 모르고 글을 쓰는 그의 정신도 책에서 력력히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어느 명문대 졸업생도 아니다. 열심이 배우고 남보다 더 큰 곤란을 이겨내면서 자습하여 끝내는 작가로 성장했던 것이다.

수년래 그는 신문이나 방송에 1,000여편이 넘는 통신문사를 발표했고 또 여러 신문, 잡지에 소설, 수기, 수필, 시 등 문학작품들을 기고해 문학상도 적잖게 수상했다.

독후감을 끝마치면서 저자의 감동적인 명언 몇개를 적어본다.

1. 장애란 걸려서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는 것이다.
2. 내 생애 최고의 자랑은 한번도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 것이다.
3. 장애란 불행일 뿐이지 결코 불가는 아니다.